

이사야서 강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8:1 - 11)



이중운 목사

철이 든 사람은 나이 값을 해야 하고 자리 값을 해야 하고 이름 값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집'이란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1절). 이스라엘은 축복 받은 이름입니다(창 32:22 - 32). 또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1절)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유다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참으로 놀라운 이름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름 값을 못했습니다.

1. 유다는 진실과 공의가 없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랑스런 이름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①유약한 모습 - 유약한 사람은 온순하고 좋은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차지도 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구태의연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면서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옛 사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약한 자들은 흔히 배은망덕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요 13:18). 이것은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큰 은혜를 입고도 돌아서서는 그 은혜를 곧바로 잃어버립니다.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랴"(4절). 목의 힘줄이 무쇠라 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목을 곧게 세우고 숙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는 인격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이마가 놋이라 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②태만한 모습 - 태만은 자기를 뜯어고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변화는 없이 기회주의자로 기회를 찾아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는 유교사상에 물들어 이런 태만한 정신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은 들으나 마이동풍처럼 자신을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랴"(4절). 이런 사람들은 편리주의 인일주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주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③외식하는 모습 - 형식을 내용보다 중요시하는 처세입니다. 기독교는 진실을 위주로 하는 종교이지 외식을 위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외식주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위선과 외식은 진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면세계는 빈약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높은 이름과 좋은 간판만 갖기를 원합니다. 위선자와 외식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이마는 놋으로 되고 목은 쇠줄로 된 사람들도 부서질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이것이 예언 성취를 통해서 진실이 회복되고 공의가 회복되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2. 하나님은 유대를 해방시키신다

유대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케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성은 이미 드러났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Justin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읽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의 글이 나를 가리켰다고 하셨습니다(눅 24:44). 사도들도 구약을 인용하며 '그 분이 이 분이랴'고 했습니다. 또한 Pascal은 구약의 예언 성취가 기독교의 진실성을 증거 하는 최대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어떤 사람이 몇일 후의 일을 추측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누가 몇 백년 후의 일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백 여년 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사 44:28). 본문 4절로 8절에서는 3절의 내용을 두 번씩이나 중복하여 역설하면서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예언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주장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그 당시 사람들만 체험하고 우리는 기록으로 믿을 뿐이지만 역사를 변동시킨 예언

성취의 사건은 역사의 흔적을 통해 더 실감 있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은 우상숭배자나 점술자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성취는 ①하나님만 참된 신이심을 더욱 믿게 하며 ②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니 마귀에게 속거나 끌려가지 않게 하고 ③보고 들은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을 자세히 상고하여 전파하라고 하십니다(6절). 이 일을 '새 일'이라 함은 사람들이 그 때까지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일을 창조된 것(7절)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지 않으시면 간교한 인생들은 '내가 이미 알았노라'(7절)고 할 것임으로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심은 그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심이었습니(9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바벨론에게 계속 학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 있는 어호와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터이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9절). 하나님은 더 이상 노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②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연단 시키므로 회개하여 빠르게 되도록 하시려고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은처럼 연단하지 않으셨습니다(10절). 은을 연단 할 때는 불순물만 제거하면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법대로만 연단 시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망하지 않도록 택하여 견져내셨습니다.

③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은 강조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11절).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망한다면 우상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견져내셨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윤 성남 집사(3 교구)는 72년도에 자동차 정비업에 몸담은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양재동에서 서울 오토 정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에 병 부상을 당하였다. 병환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 못내 아쉽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신 일 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다.

윤 집사 가정은 할아버지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4대째 믿음을 지켜오고 있으며 82년에 이영희 집사와 결혼하여 훈민, 효민, 효은 삼 남매를 두고 있다. 윤 집사는 지금 할렙루아 찬양대와 장년 3부 부감을, 이 영희 집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섬기고 있다.

부친이 고향에서 농군학교를 경영하셔서 윤 집사는 어려서부터 농기계를 접할 기회가 많기도 했지만 유난히 기계에 많은 집착을 보였다. 군대에서도 주로 중장비와 발전기, 건설기계등을 정비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제대 후에 자연스럽게 자동차 정비업에 몸을 담게 되었다.

그 누군들 고생이 없었을까만 윤성남 집사와 이영희 집사도 크고 작은 골짜기를 넘는 삶을 살았노라고 지난 날을 회상한다.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는 윤 집사는 가족의 생계를 뒤로 한 채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엔진을 연

**예수님을
기업주로 모시고
서울 오토 정비 센터**

구하여 특허를 따는 일에 몰두했고 그간 이 집사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만큼 자동차를 사랑하고, 덕분에 '자동차 박사'라는 별명도 얻게 되어 우수한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에게 종종 자문을 구한다. 어찌보면 직장생활이 그에게는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때때로 손님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 생기기도 하여 도무지 신앙양심이 그것을 허락지 않아 자영업을 계획했다. 이 영희 집사는 그 때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신 6:11)라는 말씀을 붙잡고 1년이 넘도록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영희 집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은 가게를 시작하기에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송파에서 시작한 정비 센터는 지금의 양재동 자리로 옮기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대는 과연 정보시대라서 다녀간 손님들이 인터넷에 '자동차를 매우 잘 고치고 양심적인 업소다. 여성들이 믿고 갈 수 있는 업소다'라는 글을 올려서 네티즌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 직장생활하면서 수년간 섬기던 시온찬양대(수요예배)에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마음껏 섬기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은 돈을 더 벌어야 돼서가 아니라 믿고 찾아온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을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을 두 명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직장 예배도 드리고 신앙과 기술을 함께 전수할 후진을 발굴하여 기독교 기업으로서 서울 오토 정비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넓은 기업장을 주십시오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윤집사는 자신이 부친을 보면서 무언의 신앙교육을 받은 것처럼 아이들 또한 아버지인 자신이 신실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므로 무언의 신앙교육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

허 숙(편집부)

**sky 2001
전도집회를
마치고
신성훈(청년부)**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네요. 이 여름엔 많이도 웃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름을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 계절 가운데 깃들인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에 웃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이번 전도집회를 되돌아보면 그 영광 가운데 일부입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준비함이 있었고 그곳에 올 수 있도록 배려하신 아버지의 심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함께 했던 형제와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준비해오신 아버지였습니다. 저의 전공은 아랍어를 배우는 특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과 이슬람에 대해 많은 접촉이 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도 이슬람으로 입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지만 언제나 놓지 않는 건 그들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아버지의 신실함입니다. 이번에 함께 온 자매는 무슬림이었고 형제는 카톨릭이었습니다. 어릴 적 동네 교회학교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향하긴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누군가 심어 놓은 씨앗이 먼 후에라도 움틀 수 있는 강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와 형제를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시간표를 섬세히 배열하셨습니다. 전 단지 준비된 전도집회에 데려온 것 밖에 없고 손잡고 가자 한 것 밖에 없는데 하나 하나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한 평생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때문 아파할 때도 있겠지만요..

그러다 또 웃겠죠. 울다 웃으면 안된다던데.... 안타까웠던 건 첫 날에 참석하고 둘째 날은 참석치 못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설교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섭섭했죠. 하지만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가에 꼽힌 자주색과 남색 케이스의 성경이 내 맘에 들어 왔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형제에게 남색 성경을 자매에게 자주색 성경을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어야 하는 생각에 또 웃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지. 그러면 아버지를 알게 되는데...또 섬세하신 아버지의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애기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복, 더 크게 뿌려 주는 복덩이가 되어야지....

헌혈, 각막기증현장 스케치

합격하셨군요 축하합니다!!

대학에 합격했나요?
아닙니다.
7월 1일 서울교회 102호에서 있었던 사랑의 헌혈 및 각막기증 행사에서 혈압과 간단한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것이 축하할 일이나가요?

예! 바로 건강하다는 의미이지요. 이 날 헌혈을 하기위해 왔던 50여명의 젊은이들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는군요. 이유는 빈혈과 체중 미달등 기타 건강 상의 이유로...

따끔한 바늘의 꽃뭉을 제외한 어떠한 아픔도 없었습니다. 잠시 팔이 저려도 이러한 고통보다 수술중에 혹은 질병으로 혈액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2년전 반포동에서 참여하고 싶었지만 감기약 복용으로 낙방(?)해서 아쉬웠는데 다시금 이런 행사가 있어서 주저 없이 참여했다는 집사님.

어느 권사님께서서는 2년전에는 참여했으나 이전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더라면서 아쉬운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을 보며 삭막해지는 현실에서도 서울교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날 헌혈자는 75명, 각막기증자는 14명, 시신 및 기타 장기기증자는 15명으로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또한 5시넘어서 오셔서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계셨구요.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유은경(편집부)



<10년사 편찬팀>에서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의 10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있는 10년사 편찬위의 심부름꾼 임훈규 장로입니다.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맞게된 우리 교회의 10주년은 어느 해 보다 더 깊은 은혜와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서울 교회의 또 하나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분주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던 교회인지라 각 부서마다 그간의 사역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전반적인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책자 마련이 시급합니다. 10년사 편찬위는 10년사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자 합니다.

각부서 부감이나 서기직을 맡고 계신 분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서 귀 부서에 대한 글을 편찬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부서 : 12개 교회 학교, 교구, 남·녀 전도회, 각 찬양대
2. 내용 ① 부서 조직 현황
② 부서의 목적, 사역의 비전, 특징 / 지난 10년 간 사역의 간단한 소개
③ 집회 형식 / 양육 체계 / 시간 운영 등
3. 일시 : 7월 22일 (주일)까지
4. 제출방식 : 서울교회 사무국

새로 왔어요 식당 부업에서 봉사는 남자

윤영규, 김영옥 집사
(1교구)

2부 새가족 모임이 끝나고 만나홀에서 식사하고 계신 윤집사님 가족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갖게 만드셔서 저희 교회 등록하셨다면요?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차가 움직일 수 없어 분당에 있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서울교회를 방문하게된 것이 인연이 되었고 이 목사님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무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았지요. 결정적인 계기는 구경 때 성경통독에 참가하게 되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요?

아이들(상철:20세, 상미:18세)이 큰 탈없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서 감사하며, 어떤 일이 끝날 때쯤에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중 느낀 점은?

예배 중 찬송 부를 때 남자성도 한 분이 마이크로 리드 해주시면 좋겠어요. 새벽기도회나 주일예배 시 설교는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막상 찬송에는 리더가 없어 회중이 함께 찬송하지 못하여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아 안타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도자를 따라 마음놓고 찬송을 불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교사로 봉사한 두 분이 우리교회에서 느낀 점은?

봉사만 하다가 새가족부에서 대접을 받으니 기분도

좋고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됐어요. 교회식당 부업에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무거운 것도 옮기고 설거지도 하며 즐겁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필요하더군요. (새가족 남자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저랑 같이 봉사해요.)



예수님은 난지도 김광신 장로 (1교구)

지금의 난지도는 높은 언덕에 푸른 풀과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진 공원 같은 단지모양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한 장소로 변했는지... 더구나 18홀의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니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난지도를 저토록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도록 하였는가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난지도의 밑바닥에는 서울시에서 배출된 온갖 쓰레기가 수 십 년 쌓였었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악취로 코를 막고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의 변화산으로 탈바꿈하였으니 참으로 대견할 뿐이다. 썩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우리 인간들이 난지도가 아니었던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배척받고 멸시받던 우리들이었다.

여느 수료식도 다 나름대로 뜻깊고 의미가 있는 자리겠지만, 예바다부의 수화교실 수료식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감동의 자리였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그간 배운 수화로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팀별로 나누어 침묵과 고요 속에 손짓만으로 공연을 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보는 이들의 감탄과 환호성을 자아내게 하고 감격에 겨운 박수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모두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농아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어눌한 언어·청각장애인을 만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 예수님께서 예바다(열리라)고 외치시고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치유된 이 사건의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 서야 할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정작 들을 것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이며, 내가 하는 말하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손'

김정란 집사 (6교구)

있는지 모르고 불협화음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침 받기 위해 간구 하는 나의 예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가를 되돌아보게 한 많은 도전과 더불어 믿음을 견고히 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서 확고히 정착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설레임과 기대 속에 시작하여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예바다부가 수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할 것을 확신하며 누구보다 지난 6개월을 더 큰 기쁨과 뿌듯함 속에서 지내셨을 수화교실 수강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정

- 최용걸 집사, 최일춘 권사 가정 - 승용차1대 헌납
- 장경원 오숙영 성도 (3교구가정) 득남
- 박선영(중등부) -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유망신예초청연주회에서 바이올린 협연 7월 10일(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오후 7시 30분
- 신임 직원 인사발령: 운전기사 박우찬 성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홍승전 집사 황정임 권사 가정
-은혜 중에 자녀결혼식을 마치고-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여름철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